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14.1.6(월) 16:00~19:3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13명)	오종근(교무처장), 신경식(기획처장), 조경원(총무처장), 신하운(학생처장), 이명휘(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성희연(총학생회장), 강다영(총부학생회장), 고은희(건강과학대학대표), 강다영(사범대학대표), 유미림(조형예술대학회장), 조수민(대학원학생회장), 유혜련(외부전문가)		
불참자	없음		
안건	2014학년도 등록금 및 예산(안) 1차 심의		
내용	<p>□ 개회</p> <p>성원이 되어 이명휘 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한 후, 2014학년도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할 것을 제안하다.</p> <p>□ 회의내용</p> <p>1.위원장 선출</p> <p>- 학교위원이 위원장은 중립적인 태도로 절차와 규정을 잘 알아 회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오종근위원이 적임자라고 추천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오종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다.</p> <p>-위원장이 2014년도 위원회는 등록금뿐 아니라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므로 위원들이 끝까지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하다.</p> <p>- 학교위원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과 합의하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201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합의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다.</p>		

2. 논의사항

가. 일정에 대한 논의

(1) 학교위원이 2014학년도 등록금 고지 일정을 설명한 뒤, 일정에 맞게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1월 23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다.

학생위원이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이 책정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회의 개최를 요구하다. 최소 5회 이상의 회의를 요구하다.

(2) 회의 일정을 조율하다. 2차 회의를 1월 10일(금) 4시, 3차 회의를 1월 14일(화)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후의 회의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하다.

(3)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시간 정도의 회의 시간을 원칙으로 하자는 학교측 제안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안에 따라 충분히 시간 조정을 하면서 진행하기로 하다.

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1) 참관인 허용

가)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를 위해 당연히 학생들을 의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일부 대표 학생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

나) 참관을 허용할 경우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제시에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능력과 자격이 있는 대표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서로가 합의된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됨을 설명하다.

다) 합의사항 : 회의 진행과정과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며 참관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

2) 회의록 작성, 회의 내용 공개 범위 및 방식

가) 학생위원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취를 하고 서기록을 작성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과 학생과 학교 양측에서 번갈아 가면서 회의록 초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다.

나)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서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경우, 회의 발언이 제한적이고 개인 신상에 대한 공개 논란도 있을 수 있으며, 논의 진행 중인 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학교측에서는 위의 이유를 근거로 녹취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에 한 명씩 서기를 두고 자세하게 기록할 것을 제안하다.

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모든 합의과정을 공개하지는 않으며, 서로 합의된 내용에 사인하여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설명하다.

라) 학생위원들이 회의록 작성이 회의일로부터 10일까지로 되어있어 그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학생들과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설명하다. 이에 관하여 회의록이 작성되기 이전에도, 등심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이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다.

학생위원들은 학생에게까지 공개해야 함을 설명하다. 또한 회의록에 기반하여 공개해야 한다면 회의록 작성을 최소 이틀 안에는 되어야 함을 요구하다.

학교에서는 회의내용은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합의된 내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다.

마) 합의사항 :

-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각 측에서 별도의 서기 1명씩을 추천하여 서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서기에게는 학교측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서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근거로만 사용하기로 하다.

-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은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하기로 하되, 위원들의 확인절차를 밟아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다. 다만, 서로 합의한 내용에 한하여 회의록 공개를 하기 전이라도 학생들간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개해도 되는 내용을 공유한 후, 학생대표자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

- 전 회의록은 다음 회의 때 최종 확인 하도록 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3) 자료 제공 방법

가) 학생위원은 2013년 등심위에서 자료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다.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제기하다. 자료는 다음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제공해줄 것과 열람이 아닌 제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다.

나)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음 회의 개최 48시간 전 제공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와 기한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학생위원이 2013년 등록금심의회에서 자료가 제출이 아닌 열람의 방식이었던 점을 문제 제기 하다. 열람의 경우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음을 설명하다. 열람만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학생측에서 선정한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다.

다) 자료 제공은 회의의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나, 회의 논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료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다.

라) 합의사항

- 재무처는 예산의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정리된 자료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공된 자료는 등록금 및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료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외부인과 공유하거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3. 다음 회의 내용

-재무처에서 적립금과 학교재정 및 기금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2014년 예산(안)으로 등록금 및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다.

